

“100년 전 세자매 모습 현대인 삶과 겹쳐져”

광주시립극단, 21~23일 '세자매' 공연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호프 대표작
연출 김지훈 '삶의 방식 표현에 중점'

“우리에게 행복은 없고 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광주문화예술회관 시립극단연습실을 찾았다. 연습실에서는 심오한 대사들이 흘러나왔고, 배우들은 계속되는 연습에도 지친 기색 없이 연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나상만)이 14번째 정기공연 작품으로 선택한 희곡은 안톤 체호프(1860-1904)의 '세자매'다. 21~22일(오후 7시30분) 23일(오후 3시·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오는 21일~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연극 '세자매'에 출연하는 주연배우들과 연출가. 왼쪽부터 박예진·조운정·김지훈 상임연출·양선영 배우.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인 '세자매'는 1901년 모스크바 예술극장 초연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연극, 영화, 드라마 등으로 제작됐다. 19세기 말 러시아 중산층의 무기력하고 음울한 삶을 그리면서 세 자매 열애, 마사, 이리나와 그들을 둘러싼 주변인들의 꿈과 이상, 사랑과 배신과 좌절을 담은 작품이다.

연습 후 휴식시간,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광주시립극단 김지훈 상임연출과 세자매를 연기하는 배우 양선영(올가 역), 박예진(마사 역), 조운정(이리나 역)씨를 만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작품배경은 계급사회 붕괴 등으로 혼란스러운 19세기 러시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세 자매는 주어진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해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죠. 이번 작품은 자매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 상임연출은 “연극 '세자매' 속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현실을 살고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며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주인공들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겹쳐진다”고 말했다.

배우들은 '세자매'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기하고 있을까.

“첫째 올가는 중학교 교사예요. 일보다는 결혼을 원하지만 노처녀로 늙어가요. 이 작품에서 올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잘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작품의 가장 큰 주제를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배우가 할일이

니까요.”(양선영)

“체호프의 '세자매'는 대표적인 고전 작품인데 고전이라고 하면 관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재미에 중심을 둔 상업 연극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이 작품은 내용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고전스럽지 않고 어렵지 않게 관객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드라마 한편 보듯이 잘 공감할 수 있게 연기하며 작품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예요.”(박예진)

셋째 이리나 역의 조운정씨는 “오디션 후 두달간 이리나로 살고 있지만 관객들한테 어떻게 작품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리나를 연기하면서 체호프가 이리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였을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러시아 작품이다보니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러시아에는 한국과는 다른 술문화, 차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관객들한테 이런 문화를 잘 보여주고 이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조운정)

세 자매는 모스크바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이작으로 지방도시로 거처를 옮긴다. 그 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모스크바를 동경한다. 세 자매가 그토록 가고싶어하는 '모스크바'는 어떤 곳일까. 김 상임연출은 '모스크바'를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화려한 시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꿈꾸는 미래일 수도 있는 '유토피아'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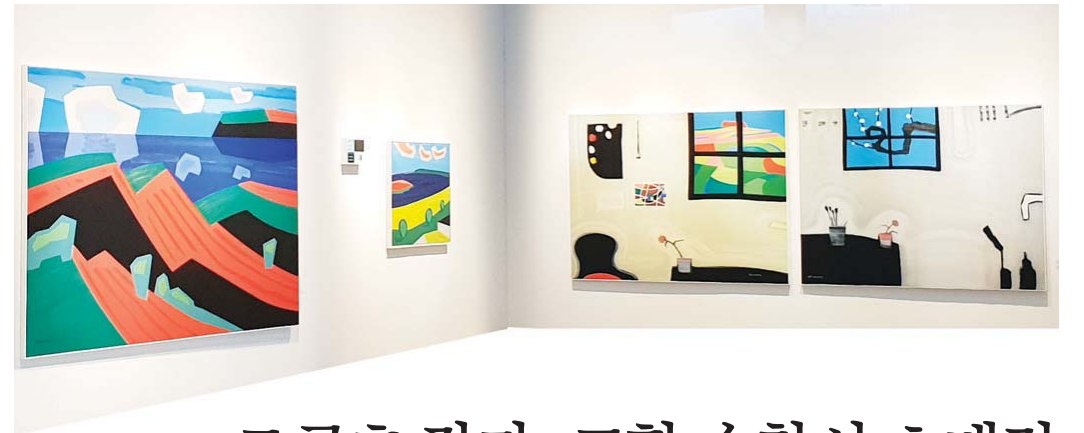
“모스크바에 대해 처음엔 로또복권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전혀 다른 존재지만요.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길 바라면서 당첨됐다는 기쁨을 하고 행복한 상상을 하며 계획을 세우지요. 하지만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진 않잖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삶에 충실하며 사니까요.”

세 자매에게 '모스크바'란 암울한 현실의 유일한 출구를 상징한다. 과연 이들은 모스크바로 갈 수 있을까. 김 상임연출은 작품의 결말에 대해 '열린 결말'로 설정했다며 “그들의 삶이 더욱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꿈꾸는 행복한 삶을 성취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열심히 또 하루를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선영씨는 “공연이 일주일 남았다. 연습이 부족한 날까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빨리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기도 하다”며 “배우는 내 연기가 100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배우를 그만뒀어한다고 생각하는데 100점짜리 올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고전작품이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관과 가족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현재의 우리가 겪는 고독과 우울, 고난 그리고 추구하는 이상 등을 그려줬어요. 이와 함께 세 자매의 우애와 즐거움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박예진)

전석 1만원. (학생50%)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조근호 작가, 고향 순창서 초대전

'도시의窓' 시리즈, 12월 1일까지 옥천골미술관

전북 순창 옥천골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여는 조근호 작가의 감회는 남다르다. 40년만의 귀향. 화가로의 꿈을 키웠던 고향에서 자신의 작품을 오롯이 선보일 수 있는 자리는 소중한 기회다.

서양화가 조근호 작가가 고향 전북 순창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최근 그가 중점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도시의窓-Window of the city' 시리즈를 선보이는 자리다.

전시가 열리는 옥천골미술관은 오래된 양극창고를 개조해 문을 연 공간이라 높은 층고가 인상적이다. 30여점의 크고 작은 작품은 1층 전시실과 2층 통로, 휴게실, 계단 등에 내걸렸다. 향아리와 고추를 활용한 김정훈 작가의 설치작품 '공간의 존재'에 조 작가의 대표작이 영상으로 흐르는 점도 흥미롭다.

울신작들이 주로 나온 이번 전시는 경쾌하고 리듬감 넘치는 그림들이 눈길을 끈다. 기존 작품에서 많이 보여지던 회색톤의 탁한 색감 대신 화사하고 생명력 넘치는 색감들이 전면에서 등장하면서 활기찬 기운을 전한다.

조 작가의 '도시의窓' 시리즈는 단순화한 선과 형태로 도시의 다양한 풍경들을 보여준다. 건물, 도로, 가로등, 거리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의 아이콘들은 구체적인 묘사 대신 간략하고 추상적 느낌으로 재구성돼 관람객의 상상의 폭을 넓게 해주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창'은 안과 밖을 연결해주

는 소통의 창구이자 도시의 다양한 풍광을 깊이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관찰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또 화폭에 등장하는 도시 풍경들은 카메라의 줌인, 줌아웃처럼 화면을 가까이 당기고 멀리 밀어내기도 하며 다양한 '시선'으로 묘사된다.

가끔 작품 속에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상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자화상이며 시리즈 중 '작업실의 하루' 연작은 간단한 소품과 창을 통해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단조롭게 표현해내 눈길을 끈다. 전시작은 추상화된 작품에서 이야기를 찾아내는 재미를 선사하는데 극도로 단순한 시선 선과 색으로 표현해낸 '간이역' 등의 작품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작가는 '도시의窓' 연작에 대해 "다양하게 펼쳐지는 도시인의 삶 속에서 일상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조 작가는 전시작 중 '도시의 창-Summertime'을 순창군에 기증, 고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금까지 23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제5회 광주신세계미술상을 수상했으며 파리 시테 데자르·광주시립미술관 공동 기획 '바람이 분다'전 등 다양한 기획전에 참여했다. 현재 선과색, 한국전업미술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심가네박씨' 23일 '논 벼 쌀' 저자 김현인과의 대화

결실의 계절 늦가을에 '쌀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 있는 책방 '심가네박씨'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논 벼 쌀'의 저자 김현인 농꾼과의 대화를 연다.

이번 대화는 쌀이 천시되는 세상을 차마 견딜 수 없어 양을 먹는 심정으로 산골 다랑논에서 벼농사를 시작한 전라도 농꾼 김현인과 함께 하는 자리다. 저자는 20대를 반독재 투쟁을 하다 보내고 이

제는 전라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그가 펴낸 '논 벼 쌀' (전라도닷컴)은 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수천 년 역사동반자 쌀의 미래를 모색한다. 과학, 철학, 역사, 문학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생생한 농사체험이 녹아 있는 책의 부제는 '저래의 숨겨진 국토의 눈물'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토토와 떠나는 말랑말랑 예술여행'

24일까지 담양 보임첸 미술관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첸(관장 김현정)은 24일까지 기획 전시실에서 '토토와 떠나는 말랑말랑 예술여행'을 주제로 결과 보고 전시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전남문화관광재단의 지원을 받아 약 6개월여간 전남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인 '흙'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진행한 2019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과정과 성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영·유아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흙으로 그려내고 빛은 작품을 전시한다. 천연 황토 물감을 이용해 흙 속에 사



는 곤충들을 그리거나 마음 가는 대로 그린 그림들이 모두 작품이 됐다. 전시실 이외에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시선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외부에도 작품들을 설치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